
팬데믹, 젠더 평등을 위한 교차점

콘스탄사 타부시

유엔여성(UN Women) 연구원

아르헨티나 국립과학기술연구소(CONICET) 및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겸임 연구원

원제와 출처: Constanza Tabbush, “La pandemia, una encrucijada para la igualdad de género”,
Nueva Sociedad, No. 293, mayo–junio de 2021, pp. 93–105.

핵심어: 불평등, 여성, 팬데믹, 라틴아메리카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기회와 권리에 있어서의 간극을 해소하는 일은 장기간에 걸친 험난한 과제였다. 코로나가 세상을 강타하기 전 25년 간, 여성운동에 힘입어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었고, 그 결과 오늘날 여자 아이들의 삶과 기대는 여러 의미에서 그들의 어머니나 할머니들에 비해 보다 개선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여아들의 보건 상태와 교육 수준 지표에서는 최근 수십 년 간 중대한 성과가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는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는 강화되었다. 또한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도 지속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국회 여성 의원들의 비중도 두 배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2020년 세계 여성의 날에서 3일이 경과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언한 팬데믹은 이런 성과를 퇴보시킬 수 있는 분기점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3백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과정에 경제를 악화시켰던 위생학적 위기가 여성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기존의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과 치명률에 있어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왔다. 하지만 여성들은 시장과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여파에 더욱 시달려왔다. 전 세계에서 일차적인 보건 방역 부문에 투입된 인력의 70%는 여성이다. 전 지구적 남부의 수많은 국가들에서 공식부분에 비해 비공식 경제(수많은 여성들이 종사하는)는 지원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들은 팬데믹 이전에도 남성들에 비해 세 배의 시간을 무임금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에 쓰고 있었으며, 학교 폐쇄와 보건서비스의 포화는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가족 돌봄과 아동 양육의 주책임자인 여성들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의 위험이 명백하게 증가했고, 그 결과 수많은 여성들은 폭력의 가해자들과 한 집에 갇혀 지내야 했다.¹⁾

단기적인 영향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교차점이 젠더 평등의 향후 전개와 요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더 불확실하다. 여러 질문들 가운데 일부를 들자면, 궁극적으로 팬데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많

1) ONU Mujeres: 《From Insights to Action: Gender Equality in the Wake of covid-19》, 2020, disponible en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9/gender-equality-in-the-wake-of-covid-19>.

은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왔듯이 돌봄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 극복의 공공 정책에서 이를 중점과제로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여성의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하는 보다 단결된 사회 건설을 위해 공공 서비스와 보편적 사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인가? 정치적 혁신과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페미니스트 운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인가? 던컨 그린(Duncan Green)은 최근의 역사가 모순된 경로를 거쳐 왔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여성 해방의 확대로 이어진 반면에 2차 세계대전 종전은 여성들이 다시 일터에서 밀려나서 시민이자 가정주부로서의 전통적 역할로 회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대폭적인 군비 감축과 복지국가 등장이 잇따랐다.²⁾ 그렇다면 이번의 위기는 어떤 경로를 향할 것인가?

기존 결함의 증폭기로서의 위기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기회로서의 위기인가?

발생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팬데믹은 가정 내 남성과 여성 간의 불균등한 노동 분업을 증폭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율성에 상당한 훼손을 의미했다. 특히 여성들의 몫이 된 돌봄 노동의 너무도 과중한 무게 때문에 가장 비관적인 시각에서는 팬데믹이 “페미니즘에 진정한 재앙”³⁾이 되었다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그렇지만 모든 여성들이 똑같은 강도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D. Green: 《COVID-19 as a Critical Juncture and the Implications for Advocacy》en Global Policy Journal, 23/4/2020.

3) Helen Lewis: 《The Coronavirus Is a Disaster for Feminism》en The Atlantic, 19/3/2020.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빠른 속도로 유급 노동 종사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는 위기 전에도 이미 취약했던 여성들의 경제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의 55개 중·저소득 국가들에서 25세 이상의 2,940만 명 여성들이 팬데믹 초기 단계에 직장을 잃었다.⁴⁾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난 1년 간 발생한 실직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비공식 노동과 상업, 제조업, 관광산업, 가사도우미업종에 집중되어 있는데, 바로 여성들과 특히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이 과다 분포되어 있는 업종들이다.⁵⁾ 이런 정황은 남성 대비 여성들의 높은 실업률로 이어졌다. 게다가 유급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노동환경도 현저히 악화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76%는 선제적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⁶⁾

이런 위기가 여성들의 소득에 미친 영향이 심각하고 장기적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 위기들을 겪은 후 여성들의 고용과 소득이 회복되기까지는 남성들의 경우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유엔여성의 전망에 따르면 팬데믹의 결과로 빈곤이 상당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젠더격차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엔여성의 예측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4억 3,500만 명의 여성과 여아들이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팬데믹의 결과로 4,7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추락했고 이 가운데 310만 명은 라틴아메리카에 거주하고 있다.⁷⁾

코로나가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에 미친 영향의 심각성은 팬데믹으로 상당수

4) ONU Mujeres: 《Fallout of COVID-19: Working Moms are Being Squeezed Out of the Labour Force》, 2020, disponible en <<https://data.unwomen.org/features/fallout-covid-19-working-moms-are-being-squeezed-out-labour-force>>.

5)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20, lc/pub,2021/2-P/Rev.1, Naciones Unidas, Santiago de Chile, 2020.

6) Ibid.

7) ONU Mujeres: 《COVID-19 Is Driving Women and Girls Deeper into Poverty》, 2020, disponible en <<https://data.unwomen.org/features/covid-19-driving-women-and-girls-deeper-poverty>>.

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는 사실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데, 남성들의 경우 이 현상은 여성들만큼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30년 간 국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급격히 증가했는데,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연령(25세~54세) 여성들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56.9%에서 66.8%로 증가했다.⁸⁾ 하지만 팬데믹의 영향은 그 전에도 이미 불완전하고 불균등했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적어도 10년의 후퇴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⁹⁾

노동시장에서 상당수 여성들의 퇴출은 가정 내부와 돌봄의 사회조직에서 젠더 역할과 분명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팬데믹 확산이 초래한 의료체계 포화, 새로운 예방수칙, 학교와 어린이집 대면수업 중단 등은 가정 내 돌봄과 가사노동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과도하게 여성에게 지어졌다. 남성 대비 훨씬 많은 비중의 여성들이 청소, 요리, 돌봄, 학교 및 기타 돌봄 기관들의 봉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자녀의 재택 학습 보조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유급 가사 도우미나 조부모, 삼촌이나 이모 등 비동거 가족들의 도움 등 다른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¹⁰⁾

이 같은 상황은 특히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급 노동에서 퇴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 6세 미만 자녀들을 둔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에서 가장 급격한 감소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8) ONU, Consejo Económico y Social: 《Examen y evaluación de la aplicación de la Declaración y Plataforma de Acción de Beijing y de los resultados del vigésimo tercer periodo extraordinario de sesiones de la Asamblea General, Informe del Secretario General》, e/cn.6/2020/3, 13/12/2019, disponible en <<https://undocs.org/es/cn.6/2020/3>>.

9) Cepal: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20, cit.; Fernando Filgueira y Juliana Martínez Franzoni: 《Growth to Limits of Female Labor Participation in Latin America's Unequal Care Regime》 en Social Politics vol. 26 No 2, 2019.

10) ONU Mujeres: 《Whose Time to Care: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during covid-19》, 25/11/2020, disponible en <<https://data.unwomen.org/publications/whose-time-care-unpaid-care-and-domestic-work-during-covid-19>>.

이런 상황은 취약한 가정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이미 2019년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20세~59세 연령대 여성들 가운데 세 명 중 한 명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떠나 있었다.¹¹⁾

실제로 위기에 직면해 여성들 내부의 불평등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처럼 계층화된 지역에서는 팬데믹 전부터 사회경제적으로 상이한 집단에 속한 여성들은 서로 매우 다른 노동시장과 가정의 현실에 속해 있었으며, 돌봄 수요의 증가와 경제 침체는 이를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¹²⁾ 사실 팬데믹 전에 가족의 의무를 충족시키면서도 소득을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들의 결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상이한 유형으로 전개되었고, 각각의 유형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여성들의 출산, 노동시장 참여, 무보수 돌봄노동 할애 시간에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하는가를 드러낸다. 첫 번째 유형은 고소득 여성들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교육적 자산을 활용해 노동시장에서 보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유리천장’으로 한계를 경험하고, 결국 가정 내 돌봄 노동으로 재분배 하지 못한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부서진 계단’에 해당하는데, 중저소득 가정의 여성들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 여성들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출하지만, 대부분 위태로운 고용조건이나 저급한 일자리 그리고 낮은 사회적 이동성에 시달린다. 종종 이 여성들은 이용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저급한 일자리나 비공식 노동을 선택해야 하며, 일부는 그 대안으로 딸이나 조모 등 가족의 도움에 의존한다. 세 번째 ‘끈적한 바닥’ 유형은 가장 낮은 소득과

11) Cepal: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20, cit.

12) Cepal: Cuidados y mujeres en tiempos de covid-19. La experiencia en la Argentina, documento de proyecto, lc/buc/ts.2020/3, Naciones Unidas, Santiago de Chile, 2020.

낮은 교육 수준의 여성들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가족에 대한 의무와 이른 나이의 결혼과 출산으로 노동 시장 진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¹³⁾

팬데믹의 영향과 이와 결부된 사회경제적 위기는 이 세 유형들에서 동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각 유형의 여성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산물인 돌봄 노동 수요 증가 그리고 경제 침체가 가족과 경제적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전략들을 수립한다.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일수록 더욱 부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에 노출되게 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유급이든 무급이든)이 갖는 절대적 중심성을 드러내고, 그 정치화와 가치 산출의 기회를 제시한다. 갑작스럽게 우리 사회는 환자 간병, 아동과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본질적’ 노동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오랜 동안 이런 종류의 일들은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부족한 정부 보조금에 시달려왔다.¹⁴⁾ 수많은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은 이런 인식에서 힘겨운 여정의 끝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을 보려 하는데, 부의 축적과 경제 성장 보다는 국민에게 복지와 돌봄을 제공하고 환경지속성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으로 경제모델을 재고하는 계기로서 비극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¹⁵⁾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팬데믹에 맞서 페미니스트 운동, 여성 운동, 토지기반 조직들의 강력하고 조직화된 대응은 구조적

13) ONU Mujeres: 《El progreso de las mujere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7. Transformar las economías para realizar los derechos》, Panamá, 2017.

14) Mariana Mazzucato: 《Re-Empowering Governments for Green, Equitable and Resilient Development》 en Comité de Políticas de Desarrollo: Development Policy and Multilateralism After COVID, Naciones Unidas, 2020, disponible en <www.un-ilibrary.org/content/books/9789210051828c005>.

15) ONU Mujeres: 《Beyond COVID-19: The Feminist Plan for Sustainability and Social Justice》, 2021, disponible en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1/06/feminist-plan>.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기회로서 현 위기를 보는 시각에 설득력을 부여한다.¹⁶⁾ 지방, 지역, 국제적 단위의 캠페인, 청원, 시위들의 요구 사항들은 인프라와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증가하는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서부터 전 지구적 남반구 국가들을 위한 즉각적인 백신 보급과 국제적 재정 지원 확대들에 이른다. 또한 이들은 국제기구, 정부와 유관 기관들에게 여성들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¹⁷⁾

페미니스트 요구에서 정부의 응답까지

그렇다면 돌봄을 ‘본질적’ 노동으로 인정하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반영되었는가? 안타깝게도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보는 기대 섞인 가정은 비록 긍정적인 일부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라틴아메리카나 다른 지역 정부들의 응답에 의미있게 반영되지는 않은 듯하다.

유엔여성과 유엔개발계획(UNDP)은 전 세계 각국이 경제, 고용과 사회보호 부문에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2020년 9월부터 조사해왔는데, 이를 참고로 앞서 제시한 질문과 관련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각 정부의 정책들에 여성의 경제적 불안 감소가 얼마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예를 들어, 여성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경제에서 여성화된 부문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 있다). 다음으로는 무급 돌봄에 어떠한 지원 조치들이 취해졌는가의 문제이다(예를 들어, 가족 책임 노동에 종사

16) C. Tabbush y Elisabeth Jay Friedman: «Feminist Activism Confronts COVID-19» en *Feminist Studies* vol. 46 No 3, 2021.

17) ONU Mujeres: «COVID-19 an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Bridging Response Gaps and Demanding a More Just Future», Policy Brief No 20, 2021, disponible en <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1/03/policy-brief-covid-19-and-womens-rights-organizations>.

하는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허용하거나, 봉쇄 기간 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는가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¹⁸⁾ 결과는 우려할 만하며, 특히 무급 돌봄과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전 세계에서 44개의 라틴아메리카 조사 대상 국가들에서는 사회보호와 고용 부문 396개 조치들 가운데 약 20.5%가 여성의 경제적 안전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분명히 충분하지 않은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세계 평균 13% 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며, 다른 지역 대다수에 비해 이 주제에서 라틴아메리카는 보다 향상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보다는 지난 20년 간 사회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전반에서 기울여온 노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의 상당수는 사회보장보다는 혜택이 훨씬 적은 사회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보다 일반적인 조치는 현금이전사업이나 식량보급사업의 확대나 신규 시행이라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21개국에서 41개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팬데믹 전부터 이런 사업에 이미 자금을 투입하고 있던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수혜 대상이었던 여성들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콜롬비아의 Familias en Acción이 여기에 해당),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을 포함해 수혜 대상을 신규로 확대 편입(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시키는 방식이 있었다. 여성들의 경제적 안전 지원에 보다 적절한 조치들로 구성된 두 번째 유형은 고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창업주 여성들과 자영업 및 비공식 노동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했다(12개국에서 32개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페루는 공공캠페인을 활용했고, 가사 노동 종사자들의

18) Para más detalles, v. nota metodológica en PNUD: «COVID-19 Global Gender Response Tracker», <<https://data.undp.org/gendertracker/>>.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 개정을 단행했다.¹⁹⁾ 여성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한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았는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한국이 이들 소수 국가들에 해당한다.²⁰⁾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급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방치된 분야로 남아 있으며, 사회보호와 고용 조치의 단지 11%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조치들을 시행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외의 지역들에 비해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그 비중은 단지 6.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지역 내에서 이와 관련해 대응 조치를 취한 국가는 3분의 1(45개국 가운데 12개국)에 불과했다. 사회적 지원에 집중된 경제적 보조 조치들과는 달리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에게 주로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들은 포괄적으로는 다음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범주 1) 사회보호(사회보장과 사회적 지원) 조치들 가운데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휴가의 확대가 두드러진다(6개국에서 6가지 조치들이 시행). 예를 들어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소위 ‘팬데믹 휴가’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유급 휴가를 도입했는데, 특히 학교 폐쇄 기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민간 부문에는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19) ONU Mujeres, OIT y Cepal: ‘Trabajadoras remuneradas del hogar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frente a la crisis del covid-19’, 2020, disponible en <<https://lac.unwomen.org/es/digiteca/publicaciones/2020/06/trabajadoras-del-hogar-frente-a-la-crisis-por-covid-19>>.

20) 칠레는 ‘복귀’와 ‘채용’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먼저 계약이 중단된 노동자들이 직장へ 복귀하고, 동시에 각 기업들이 최대 6개월 간 정부고용지원금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해 이들을 우대한다.

범주 2) 팬데믹 상황에서도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들(7개국에서 12가지 조치들이 시행) 가운데 유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학교 폐쇄로 인해 돌봄 업무가 급증했음을 감안할 때 특히 그렇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5개 국가들이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 코스타리카는 대표적인 예외 사례였는데, 사회적 자가 격리 상황에서 의료진과 그 외 필수 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공공 보육 시설을 계속 개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다 최근에 가이아나는 필수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상 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사업에 착수했다. 또한 확산세가 감소함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학교 재개방을 위한 안전 계획들을 수립했다.

범주 3) 고용과 관련해 각 국 정부는 돌봄 노동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노동 시간을 감축시키거나 원격 근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부모들의 소득을 보조하고자 했다(5개국에서 6가지 조치들이 시행).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는 코로나 관련 가족 돌봄을 위해 부모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쿠바는 팬데믹 동안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이들을 간병해야 하는 부모들의 임금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신설했다.

이런 조치들은 무급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특히 비공식 노동이 일반화된 국가들에서 그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분산된 대응이 여성들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팬데믹 이전에 존재하던 역량강화의 세 유형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처럼 정부의 분산된 대응책들이 미칠 상이한 영향들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데,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사회 안전 강화 조치들과 고용 보조금을 활용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위치에 놓이고 빈곤한 가정에 속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지체되고 있는 시급한 과제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로서 이를 통해 사회적 집단들과 여성들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며, 새로운 세대의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 촉진을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 부문 여성들의 경우에는 비록 ‘유리천장’에 시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고용과 사회 안전에 접근할 수 있었을 터이며, 일정 부분 가족 돌봄의 부담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많은 경우에 그들은 원격 근무 형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고, 임신, 질병, 자녀나 필요한 경우 가까운 친척들을 돌보기 위해 휴가(종종 유급으로)를 신청할 수 있었다. 팬데믹의 예방적 조치로서 사회적 격리가 시행된 기간에 그들은 노동자이자 돌봄 제공자이자 보조 교사로서 삼중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업무들을 곡예하듯이 병행하며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테고, 이와 동시에 그들의 노동 시간 총량도 증가했다. 이 집단의 여성들은 팬데믹으로 그들의 시간과 소득에 가해지는 이중의 압박을 헤쳐가기 위해 정부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이들이다.

실제 정부의 대응책들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리천장’ 유형의 여성들과 다른 두 유형들, 즉 ‘부서진 계단’과 ‘끈적한 바닥’ 여성들 간의 간극은 확대되었다. 그리고 빈곤화 과정, 식량불안, 사회적 하향이동성은 이 두 유형들에 가장 강도 높게 작용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중간 유형에 속하는 ‘부서진 계단’은 평평해져서 결국 ‘아래로 향하는 미끄럼틀’이 될 수 있다. 풀어 설명하면, 비공식 부문에서 더 두드러진 고용 감소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이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사회보호책들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고 결국 다시는 사회적 계층 상승을 꿈

꿀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긴급 조치로 취해졌던 비공식 부문에 대한 일시적 지원 확대, 예컨대 현금이전사업과 소득 지원금 또는 휴가는 사회보호 제도에서 중요한 혁신을 의미했고, 여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했다. 취약 계층 대상 현금지원사업의 지원금 확대가 일련의 지원 조치들과 결합되어 제공되었을 때 이 조치들은 팬데믹의 결과로 심화되었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일부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에서 이런 사업들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들은 사회보호 사업을 비공식 부문에 영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²¹⁾ 그럼에도 이런 조치들은 매우 단기간 지속되었다(평균 3.3개월 지속).²²⁾ 이전에는 돌봄과 유급 노동 사이에서의 곡예로 이 집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면, 위기와 더불어 이제는 심각한 퇴보를 겪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단계로 비공식 부문에 사회보호 조치들을 영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집단의 재기를 위해 보다 집중적인 고용 정책이 필수적인 것이며, 이와 더불어 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끈적한 바닥’ 유형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이보다도 더 심하다. 공공과 민간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이미 낮았던 임금과 저조한 노동 활동에 가해진 충격에 위태로운 주거 환경 그리고 기본 인프라 시설 접근성 부족이 더해지면서 이 여성들은 가사 노동과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기에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더해 그들이 공중보건 지침을 준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21) Merike Blofield, Nora Lustig y Mart Trasberg: 《Social Protection in Argentina, Brazil, Colombia, and Mexico During the Pandemi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21, disponible en <www.cgdev.org/blog/social-protection-argentina-brazil-colombia-and-mexico-during-pandemic>.

22) Ugo Gentilini, Mohamed Bubaker Alsafi Almenfi y Pamela Dale: 《Social Protection and Jobs Responses to COVID-19: A Real-Time Review of Country Measures》, COVID Living Paper, Banco Mundial, Washington, DC, 11/12/2020.

지고, 결국 비공식 주거지에서 코로나 확산율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소득 1분위 여성들에 해당하는 ‘끈적한 바닥’ 유형은 이렇게 일종의 ‘헤어나기 힘든 바닥’이 된다.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 부족은 이 유형의 여성들과 그들의 가정이 처한 보건, 돌봄, 소득 위기를 심화시키고, 식량안보에 있어 심각한 퇴보를 가져오며, 결국 세대 간 빈곤의 계승 현상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여성 운동과 토지기반 운동들은 정부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접근해 앞서 언급한 삼중 충격의 비공식적 완화제로서 기능하며, 빈약한 사회적 지원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빈곤 여성들과 변두리의 여성들 그리고 아프리카후손 여성들이 주도한 공동체 활동에 상당 부분 힘입어 무료 급식소와 공동체 돌봄 서비스가 조직되고 있으며, 젠더 폭력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정보 부족을 보완하고, 일부는 국가의 결핍을 보상하고, 일부는 젠더 정의와 사회적 정의 그리고 인종 정의 구현을 주창한다. 하지만 이 같은 비공식적 보호망은 취약하며, 공공정책의 부재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없다. 팬데믹이 진정으로 변동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국가 건설에 있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결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현재 위기의 나머지 과정과 향후 다가올 일들에서 우리는 이 말이 라틴아메리카의 운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지역은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에 낯설지 않은 곳이며, 따라서 이 경험이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이후 우리는 여성들에게 유독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왔으며, 지난 수십 년 간 우리가 거둔 성과들이 훼손될 위험

에 처해있다. 우리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팬데믹은 여성과 남성 간에, 그리고 서로 다른 여성 집단들 간에 간극을 철저히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장기적 추세를 연구하는 이들은 젠더 평등에 있어 진보는 단선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진보와 퇴보를 함께 언급한다. 일견 양 방향의 운동, 즉 진보와 퇴보 모두가 서로 유사하며, 똑같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다고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진보에 항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본인 수입이 없는 출생가능연령(25세~34세) 여성의 비율은 1990년 47%에서 2014년 30%로 감소했는데, 이 25년의 시간은 보다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총체적인 노력들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²³⁾ 반대로 퇴보하는 데는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 팬데믹으로 2021년 불과 1년 만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지역 내 310만 명의 여성들은 우리의 성취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이다. 이런 이유로 위기에 맞서 우리들이 거두었던 성과들을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

페미니스트들과 사회운동 세력들의 요구와 정치적 상상력은 보다 정당한 사회 질서와 보다 평등한 사회적 계약을 촉진시킨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때 마침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변화를 위한 이런 잠재력이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강정원 옮김

23) F. Filgueira y J. Martínez Franzoni: 'The Divergence in Women's Economic Empowerment: Class and Gender under the Pink Tide' en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vol. 24 No 4, 2017.